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청주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정재훈

전화 043-299-4381

## 보도자료

2023. 8. 4.(금)

# 선의 베푼 종교인을 통로로 이용한 마약밀수사범 엄단 - 55,000명 투약분 마약류(시가 26억 상당) 압수, 4명 구속기소 -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(부장검사 안창주)**는 '23. 4.부터 약 4개월간 해외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수사한 결과, **총 5건의 태국궤 야바, 캐나다궤 필로폰·코카인 등 마약밀수를 적발하여 4명을 구속기소하고,**  
- 야바 52,141정 등 가액 합계 약 26억원 상당의 마약류(약 55,000명 동시 투약분)를 압수하여 국내 유입·유통을 원천 차단하였음

- **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밀수·유통 범죄가 급증하면서,** 청주지검이 압수한 **충북지역 밀수 야바\***는 '23년 상반기만 146,499정으로 '21년 전체 밀수량(1,898정)보다 무려 7,618% 급증하였음

\* 야바는 태국·라오스 등에서 생산·유통되는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 마약으로,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국내 유입 급증

- 청주지검은, 관내 산업단지의 **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** 해외 공범들과 공모하여 **교회목사에게 마약이 숨겨진 국제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하는 등 마약밀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의를 베푼 종교인까지 마약밀수에 이용한 것**을 밝혀내고,

- ① **국정원·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,** ② **최신 영상 수사 장비활용 등 과학수사로 가담자들을 검거하였음**

- 앞으로도 청주지검은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충북지역 수사실무 협의체」를 통해, 관내 마약공급원인 밀수사범을 끝까지 추적·엄벌하고 마약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함으로써,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는데 앞장서겠다

##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마약류 발송국	공소사실 요지	처분
1	A (여, 24세) 태국인 불법체류	태국	<p><b>【야바 18,296정 및 야바가루 밀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 5. 8.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약 9억원 이상 야바 18,296정 및 야바가루 211.4g을 전자기타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</li> </ul> <p><b>【야바 24,189정 밀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 6. 11.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12억원 상당 야바 24,189정을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</li> </ul>	구속기소 (‘23. 8. 4.)
2	B (30세) 태국인	태국	<p><b>【밀수입 야바 16,117정 수수미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 7. 12. 태국에서 국내 반입된 시가 합계 약 8억원 상당 야바 16,117정을 라오스 체류 선교사 및 국내 목사를 이용하여 교회 1층 로비에서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</li> </ul> <p>※ B는 공범 A가 밀수입한 야바 중 일부를 넘겨받으려 한 것임</p>	구속기소 (‘23. 7. 31.)
3	C (40세) 내국인	캐나다	<p><b>【밀수입 필로폰 70g, 코카인 1.93g 수수미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 5. 11. 캐나다에서 CCTV 카메라에 은닉되어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시가 합계 약 2,200만원 상당 필로폰 70g, 코카인 1.93g을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</li> </ul>	구속기소 (‘23. 5. 26.)
4	D (55세) 태국인 불법체류	태국	<p><b>【야바 9,656정 밀수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23. 6. 12. 국제우편을 통해 시가 약 5억원 상당 야바 9,656정을 실타래 심지에 은닉하여 밀수입</li> </ul>	구속기소 (‘22. 7. 14.)

## II

## 주요 수사 경과

### ① 태국 발(發) 야바 42,485정 등 밀수 및 수수미수 사건 [순번1,2]

- '23. 7. 12. 공범 A가 밀수한 야바 수령책 B 긴급체포

▶ 라오스에 있는 공범이 현지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국내 목사로 하여금 밀수입된 야바 중 일부(16,117정)를 국내 교회 로비로 옮겨놓게 한 후, B가 교회에서 이를 수령하다가 잠복 중이던 검찰수사관에 의해 검거

- '23. 7. 18. 야바 밀수 주범인 A 긴급체포

▶ B 검거 후 유심을 파손하여 버리는 등 증거인멸하였으나, CCTV 영상분석 등으로 A를 특정하고 A가 근무하는 공장에 입장하여 검거함

- '23. 7. 28. A의 동종 야바 밀수 범행 추가입건

▶ A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, '23. 5. 8. 인천세관에서 국제특급우편물 속 야바가 은닉되어 있는 전기기타 본체 3개의 수령자가 A임을 확인하여 추가입건

- ~'23. 8. 4. A, B 각 구속기소

### ② 캐나다 발(發) 밀수입 필로폰 70g 등 수수미수 사건 [순번3]

- '23. 5. 11. C 긴급체포

※ 우체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편물을 찾으러 온 C 검거,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확보하여 혐의 입증

- '23. 5. 26. C 구속기소

### ③ 태국 발(發) 야바 9,656정 밀수 사건 [순번4]

- '23. 6. 28. D 긴급체포

※ 인천세관에서 국제특급우편물 속 실타래 심지에 붙인 야바가 은닉된 빨대를 적발 후 공장에서 우편물을 수거하여 자재창고에 숨겨 둔 D를 검거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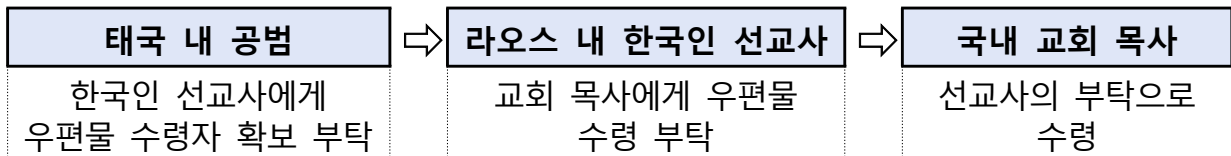
- '23. 7. 14. D 구속기소

### III

## 수사결과 및 수사회의

### 1 해외 체류 선교사, 교회 목사 등 우리나라 종교인들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밀수하려고 한 외국인 사범 검거

- A·B 및 태국 내 공범은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대량의 야바를 안전하게 수령하고자, 라오스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 국내 교회 목사에게 국제우편물 수령과 교회 로비 보관을 부탁하고,
  - 이들의 마약밀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목사로부터 하여금 야바가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교회 로비에 옮겨놓게 하고 이를 찾아가려고 하는 등 국내 종교인까지 이용하기로 치밀하게 계획



- 청주지검은 국정원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, 약 3개월간 수회에 걸친 잠복,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동선 추적 등 끈질긴 수사로 모두 검거하여 구속하였음

### 2 급증하는 외국인의 마약밀수범죄에 엄정 대응

- 최근 충북 충주·진천·음성 등 관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약 밀수·유통이 급증

《최근 4년간 검찰이 압수한 충북 지역의 밀수 마약류》

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2년 상반기	'23년 상반기
필로폰(g)	5	347	5,970	6,466	5,177	69.41
야바(정)	1,850	1,402	1,898	84,748	44,181	146,499
MDMA(정)	-	-	-	6,107	-	5,514
LSD(장)	25	-	-	-	-	1,000
케타민(g)	-	-	-	405.2	-	31.35

-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투약하는 야바 밀수량은, '22년부터 급증하면서 '23년 상반기만 146,499정으로 '21년 한해 밀수량(1,898정) 대비 무려 7,618% 폭증하고, 전년 동기(44,181정) 대비 231.6% 증가

- 산업단지 중심으로 태국 등 동남아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와 마약 밀수·유통으로 벌어들이는 고수익이 급증의 주요 원인
- 20대 태국인 여성 A는 약 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야바 42,485정 및 야바가루(211.4g)를 불과 2개월 사이에 전기기타 본체 등에 숨겨 밀수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려고 하였는데,
- 태국 내 공범으로부터 A가 받기로 한 범행 대가는 태국 돈 70만바트 (한화 약 2,600만원)으로, 이와 같은 높은 수익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

▶야바 1정의 태국 도매가격은 30바트(약 1,100원)에 불과하나, 한국 가격은 5~10만 원으로 야바 밀수 시 약 100배의 수익 가능

### ③ 과학수사 활용 및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마약밀수사범 검거

-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대포폰 사용은 물론, 마약류가 숨겨진 국제 우편물 대리수령, 감시가 어려운 장소로의 수취지 변경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매우 어려움
- 청주지검은 국정원·세관 등을 통한 수사단서의 확보와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업무협조를 바탕으로, 최신 영상 수사장비 활용 등 과학수사를 통해, '22년부터 현재까지 마약류 밀수사범 21명을 검거하였음

## IV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청주지검은 국정원, ONCB(태국 마약청) 등 국내·외 수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공급하는 공범 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마약류 밀수입을 원천 차단하고,
-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충북지역 수사실무협의체」를 통해 국내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 국내 유통·투약사범도 철저히 수사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서겠음 ■■■

**붙임 : 적발된 마약류 사진**

[사진1] A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전기기타 본체 3개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사진2] A, B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가방 안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

[사진3] C의 밀수입 필로폰 등 사진



CCTV 카메라 제품에 필로폰 등을 은닉한 모습

[사진4] D가 밀수입한 야바 사진



실타래 심지에 야바가 든 빨대를 붙여 은닉한 모습